

전력산업 구조개편

제1절 추진배경

1. 여건의 변화

전통적으로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독점체제가 당연시 되어 왔으며,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기 때문에 시장거래가 불가능한 재화로 인식되어 모든 나라는 발·송·배전 사업을 일관 통합체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규모 고효율의 발전기가 개발되어 발전부문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송전부문은 단일계통으로 운영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되, 발전 및 배전부문에는 경쟁을 도입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식 전력량계가 개발되어 실시간 전력거래도 가능하게 되어, 전력산업에도 시장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2. 각국의 동향

'90년대 초반 가장 먼저 경쟁체제를 도입한 영국은 발전·송전·배전을 독점하고 있던 중앙 전력국(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을 3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하였다. 12개 지역배전회사로 주식매각을 통하

여 민영화하고, 각 전력회사가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국가 60% 이상이 시장을 개방하였거나 시장개방을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세계 최대전력시장인 미국도 '90년대 중반 이후 전력시장을 쉐별로 자유화하여 현재 21개주에서 경쟁적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역시 주요 쉐가 시장 개방을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태로 조만간 전력거래시장을 운영할 전망이다. 이 밖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도 이미 경쟁을 도입하였거나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총 40여개 국가에서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1. 수립경위

우리 나라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원활히 충족하기 위해서 독점체제를 통한 규모의 경제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국가 주도하에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도 경제 개발기를 벗어나서, 급속한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여건 마련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공기업인 한전이 국내 전력시장을 독점하면서 연간예산이 27조가 넘는 거대기업으로 변모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총괄원가 보상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전기요금 구조는 한전으로 하여금 비전력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방만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등 구조적 비효율을 고착시켰다. 또한 전기요금수준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소득층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재투자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한전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설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94.7월부터 '96.6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추세와 일시에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97.6월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98.9월부터 '98.12월까지 4개월 동안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역을 수행한 Rothschild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검증토록 하였다. 그리고 '98.11월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의 수 차례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94년부터 '98년말까지 장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99.1.21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취업 "확실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자!"

- ♣ 열관리(산업)기사
- ♣ 보일러산업기사
- ♣ 공조냉동산업기사
- ♣ 가스산업기사
- ♣ 보일러취급
- ♣ 공조냉동기계
- ♣ 보일러시공
- ♣ 가스기능사



개강 □산업기사 :2003년 1월 10일
 □기능사(문제풀이):2003년 1월 6일
 ※2003년도 실직자(전액무료), 교육생모집중(분기별)

본원은
 • 1971년 5월 국내최초 승인된 전문 학원
 • 학점은행계 교육기관 (전문학사, 공학사)
 • 실업자 직업훈련 교육기관 입니다.

※입학전 본원의 취업대장(현황) 확인후 접수 가능! ☎ 취업처 (구인및 구직) (02)762-8509